



2026. 3. 25 (수)

조선/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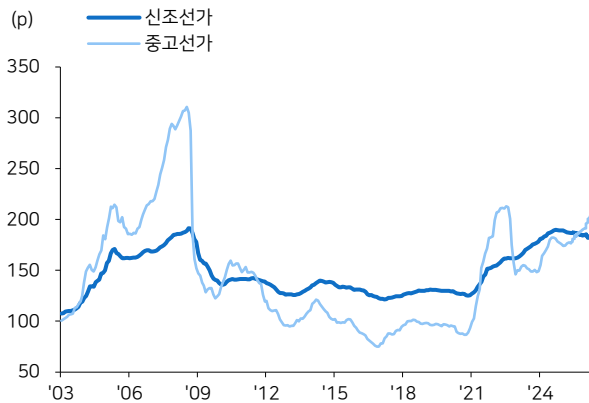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1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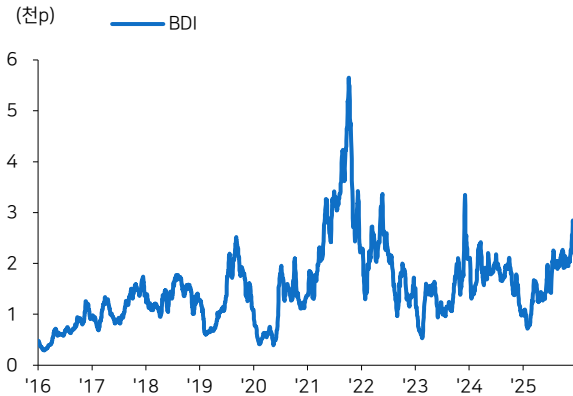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9.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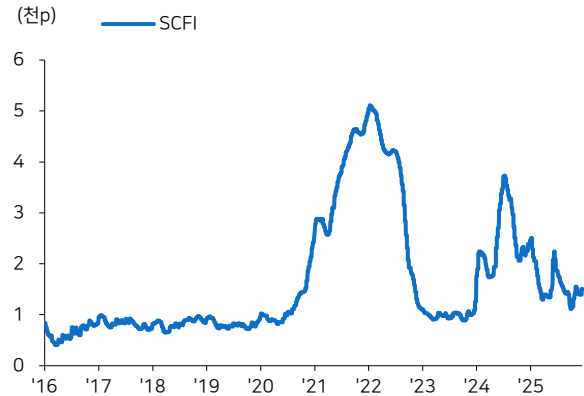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37.0p (-1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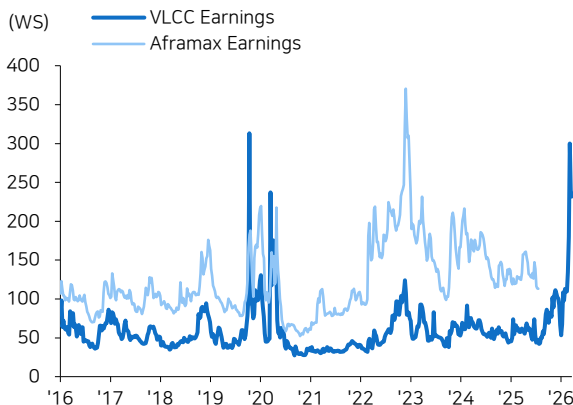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706.5p (-3.8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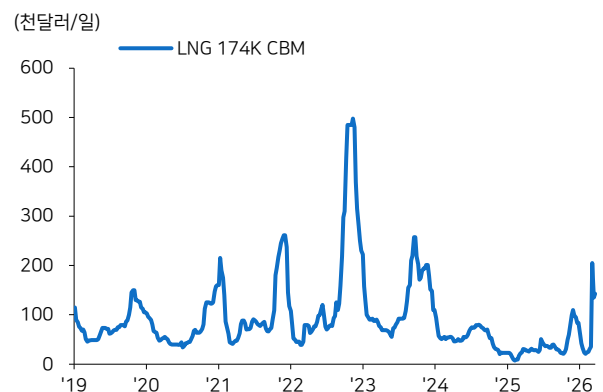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231.6WS (-8.1p WoW)



LNG Spot 운임

142.5천달러 (+7.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hell could take FID on Venezuela gas project in 2026 (Upstream)

<https://zrr.kr/qBlnpH>

Shell의 최고경영자 Wael Sawan이 CERAWEEK 컨퍼런스에서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와 규제 완화에 힘입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FID)을 이르면 올해 말 안에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됨. Shell은 약 4.2조 입방피트의 가스가 매장된 Dragon 해상 가스전을 우선 개발하여 Trinidad & Tobago 내 자사 인프라를 통해 액화 및 수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Vepica, KBR, Baker Hughes 등과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짐. 중동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Sawan 회장은 에너지 시스템의 복원력 확보를 강조하며, LNG Canada 프로젝트와 같은 공급원 다변화를 통해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US LNG exporter working on 'massive orders' for expansion equipment (Upstream)

<https://zrr.kr/TVIPqZ>

미국의 Venture Global이 CP2 및 Plaquemines LNG 수출 시설의 대규모 확장을 위해 '막대한 주문'을 시작했으며, 2년 반 내에 연간 8,500만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보도됨. 최고경영자인 Sabel 회장에 따르면 FERC와 DoE에 생산 용량 증설 신청을 마친 가운데 CP2 1단계 건설이 순항 중이며, 2027년 말 첫 LNG 생산을 목표로 데이터 모니터링 기술을 통한 효율 극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해짐. 공급망 확보를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미국산 LNG의 글로벌 공급 비중을 대폭 높이고, 향후 운반선 및 관련 인프라 수요를 자극할 전망으로 알려짐.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승부수 띄운 국회, 한화오션·HD 현대중공업, 수주 성공 기대감 (국토교통부)

<https://zrr.kr/NQHnnM>

국회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방·방산 협력 강화 결의안을 의결하며 정부 차원의 수주 의지를 천명했다고 보도됨.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코리아 원팀'으로서 현지 유지·보수(MRO) 역량 강화와 압도적인 납기 단축을 필살기로 내세웠으며,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잠항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장보고-III 배치-II'를 제안해 기술적 우위를 점했다고 전해짐. 독일 TKMS와 최종 결선을 치르는 이번 사업은 이르면 6월경 수주 업체가 결정될 전망으로 알려짐.

한화오션, 40년 '단일노조' 깨지나...복수노조 설립 신고 (동행미디어시대)

<https://zrr.kr/FAQ43q>

한화오션이 설립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해 온 금속노조 단일 체제를 벗어나,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신규 노조 설립 신고서가 접수되며 사상 첫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한다고 보도됨. 기존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이를 노조 분열 의도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사측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황으로 전해짐. 이번 '노노(勞勞) 갈등'은 향후 입단협 주도권 다툼과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및 공정 차질 등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알려짐.

Suezmax and aframax tanker supply at 'tightest ever' in US Gulf as Asian refiners scour the world (TradeWinds)

<https://zrr.kr/Ulfzfo>

호르무즈 해협 폐쇄 여파로 미국 걸프 지역의 Suezmax급 및 Aframax급 유조선 가용 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운임이 폭등 중이라고 보도됨. 아시아 정유사들이 중동을 대체할 원유 확보를 위해 파나마 운하 통과가 가능한 중소형 유조선에 집중하면서 용선료가 하루 15만 달러를 상회하는 등 유조선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극도로 심화되었다고 전해짐. 중동 분쟁 장기화 우려 속에 아시아 구매자들의 원유 조달 노선이 다변화됨에 따라, 유조선 선종을 중심으로 한 신규 발주 확대와 선가 상승이 이어지며 시장의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으로 알려짐.

Why markets could struggle to replace Qatar's LNG volumes amid US-Iran war (Upstream)

<https://zrr.kr/Qthk14>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및 카타르의 생산 중단으로 글로벌 LNG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본의 증산 요청에 대해 호주 Woodside 등 주요 공급사들이 단기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CERAWEEK에서 보도됨. Venture Global과 Chevron 등 에너지 기업들은 글로벌 LNG 공급의 3분의 2가 카타르, 미국, 호주에 집중된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적하며, 상당수 물량이 이미 장기 계약에 묶여 있어 즉각적인 물량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해짐. 전쟁 발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9,000만 톤 규모의 공급 역량이 상실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장기 공급 계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미국 내 신규 수출 프로젝트들의 조속한 승인과 건설이 시장 변동성을 해결할 대안으로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